

강진 오감통...한여름 상권 ‘오감 활력’ 불어넣는다

15~16일 물놀이·체험 어우러진 자율상권 활성화 행사 가수 자두 출연 등 청소년 공연·먹거리·차량장터 풍성

전남광주통합시 강진읍 오감통이 한여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변신한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강진읍 오감통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오감통 자율상권 활성화 행사’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군이 주최하고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이 주관한다. 단순한 공연 중심의 지역축제제를 넘어 체험된 강진읍 상권에 사람을 모으고, 지역 상인과 주민, 관광

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상권 활성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음악과 체험, 물놀이, 먹거리, 장터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오감통 일원으로 끌어모을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청소년 뮤지컬 페스티벌을 비롯해 음악창작소와 연계한 다양한 공연



이 펼쳐진다.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트로트와 가요, 밴드, 춤 등 각자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며 오감통을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채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무대는 16일 오후 4시 행사다. ‘김밥’, ‘대화가 필요해’ 등 친숙한

노래로 사랑받은 가수 자두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과 함께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LED 키캡과 하트 키링 만들기, 부채 만들기, 녹차 시음, 화채·팥빙수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무더위를 식힐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된다. 어린이들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행사장에는 무더위쉼터도 마련한다.

지역 상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와 장터도 행사에 활력을 더한다. 피자 와 핫도그, 닭꼬치, 타코야키, 콜팝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차량의 트렁크를 판매 공간으로 활용하는 이색 차량 장터도

열린다.

차량 장터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준비한 공예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방문객들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며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는 장터 특유의 재미도 만끽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오감통을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고, 듣고, 맛보고, 체험하고, 즐기며 머무는 지역 상권의 거점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오감통 주변 상점과 음식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해 문화행사와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복합 속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군은 어린이 물놀이장과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장 환경을 수시로 정비하는 한편, 무더위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갖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수 강진읍자율상권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여름의 즐거움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지역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오감통을 찾아 공연과 물놀이, 체험, 먹거리를 즐기며 강진의 여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득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목포 수산 간편식’ LA 입맛 잡고 미국시장 공략

매생이·전복·툰 활용 제품 시식...K-푸드 경쟁력 확인

해담은 어업회사법인(주) 현지화 검토...유통·수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 지역 수산물 유통을 위한 간편식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확인하며 K-푸드 수출시장 공략하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해양수산물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인 해담은 어업회사법인(주)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홀쇼핑월드 LA점에서 수산 간편식 시식·홍보행사를 진행했다.

홀쇼핑월드 LA점은 현지 한인 소비자는 물론 K-푸드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 이 찾는 주요 유통채널로, 이번 행사는 전남 수산식품의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지에 선보인 제품은 매생이 버섯죽, 전복볶음, 별미볶음 등이다. 지역 대표 수산물인 매생이와 톳, 전복을 활용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들이다. 특히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식행사로 진행해 제품에 대한 현장 반응을 확인했다.

해담은 어업회사법인(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집한 소비자 의견과 반응을 바탕으로 제품의 현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제품 개선과 미국 유통망 확보, 수출 확대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건강 간편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해외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LA 시식행사는 지역 수산물이 국내 소비를 넘어 미국 현지 식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

특히 조리과 보관이 편리한 간편식 지역 수산물의 맛과 영양을 접목하면서 K-푸드와 전남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전남해양수산물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인 해담은 어업회사법인(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홀쇼핑월드 LA점에서 수산 간편식 시식·홍보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시와 전남해양수산물업투자지원센터도 지역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윤영승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은 “이번 시식행사를 통해 K-수산 간편식의 미국시장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제품 개선과 판로 개척에 적극 반영해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해양수산물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업의 창업과 사업화, 기술 개발,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며 전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2123@gwangnam.co.kr

신안, 월 3300만원 ‘시니어 의사’ 공모

공중보건의 급감...보건지소 주1~2회 순회진료 등 부담

도서지역 진료 안정성↑...원격협진 등 의료공백 최소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커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내걸고 숙련된 ‘시니어 의사’ 확보에 나선다.

신안군은 오는 18일까지 만 60세 이상 의사를 대상으로 ‘시니어 의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채용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섬 지역 특성상 단순한 순회진료만으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현재 신안지역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5년 21명에서 올해 15명으로 6명 줄었다. 이는 1년 만에 28.6% 감소한 것으로, 16개 보건지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8곳에는 현재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경우 인근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1명이 최대 4개 보건지소를 맡아 주 1~2회씩 순회하며 진료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섬이 많은 신안군의 지리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순회진료만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숙련된 의사를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의 보

수는 주 5일 근무 기준 세전 월 3300만원이다. 주 4일 근무를 선택할 경우에도 세전 월 2640만원을 지급한다.

높은 보수는 도서지역을 포함한 순환근무와 높은 임상경력 요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채용된 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일반진료를 비롯해 예방접종 예진, 제증명 진단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원격협진 시범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 명의 숙련 의사를 활용해 대면진료와 원격협진을 병행함으로써 섬 지역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반의는 의사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군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해 의료취약지역의 진료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에 꼭 필요한 의사가 채용되길 바란다”며 “섬 주민들도 도시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 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2123@

순천, 시장 ‘직통 문자’ 운영 생활불편·건의·정책제안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시민과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직통 문자서비스 ‘시장에게 문자하세요’ 운영에 나섰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민선 9기 시장 비전인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전화 번호(010-2040-7490)로 생활불편과 건의사항, 정책제안 등을 문자로 전달하고, 주요 시청 소식과 생활정보도 받아볼 수 있는 양방향 소통창구다.

시는 기존 카카오톡 기반 소통창구인 ‘일사천리순천’에 이어 문자 기반 서비스를 추가해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시민들의 민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생활불편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확인이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 과정과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시 정보수신권을 원하는 시민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주요 행사와 생활정보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을 지원한다.

순천은 시장은 “시민주권시대의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며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하고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열린 소통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최근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

담양, 청년 현장 목소리·의견 청취

정주여건 개선·정책 발전 방향 등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문화·복지 등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담양군은 최근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역 생활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사 회

의실을 벗어난 외부 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날 박 군수와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애로사항과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청년 정주 여건을 비롯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가 논의됐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금감증을 해소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도 함께 살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향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원 군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해남, 성곽·봉수 등 역사 콜로키움 개최

문화·발굴 성과 바탕...문화유산 가치 재조명

전남광주통합시 해남군이 성곽과 봉수 등 관방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13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해남의 성곽이 말해주는 것



들’을 주제로 ‘제3회 해남역사 콜로키움(토론회)’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성곽 봉수 등 관방유적으로 재구성하는 해남’을 중심으로 해남 곳곳에 남아 있는 성곽과 봉수 등 관방유적에 축적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남의 지역사를 입체

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세종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가 맡아 ‘해남의 성곽 봉수·관방유적으로 보는 해남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한다. 문헌 기록과 최근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해남 주

요 성곽과 봉수의 역사적 가치와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 이수진 동신대학교 교수와 정일(제)영해문화유산연구원 실장이 참여해 관방유적의 보존·정비와 활용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해남=성정수 기자 gjs8239@gwangnam.co.kr